

**전일동향**

전일 대비 26.40원 상승한 1,466.10원에 마감

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26.40원 상승한 1,466.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2.60원 상승한 1,462.30원에 개장했다. 핵 협상을 이어가던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이며 정면으로 충돌한 여파로, 1,466.1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8.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9.83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62.30	1506.50	1459.10	1466.10	1464.50
	엔화	914.92	951.51	914.15	929.83	-
	유로화	1682.88	1738.42	1681.68	1703.24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48	-4.72	-9.73	-16.73
	결제환율(수입)	-0.82	-3.41	-7.57	-13.1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국-이란 분쟁 장기화 우려에...1,48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66.10) 대비 12.85원 상승한 1,477.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과 이란 간 분쟁 장기화 우려 확산으로 상승 전망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계감 속 원화는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강달러 분위기에 환율은 야간 연장거래 시간대에 한때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환율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 정부의 유조선 보호 조치 발표로 누그러진 시장의 불안감과 강화된 당국 경계감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473.75 ~ 1492.00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1487.0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85원 ↑
	■ 美 다우지수 : 48501.27, -403.51p(-0.8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65.4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109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